

무지 중수지 관절의 외상성 탈구 치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이승구 · 송석환 · 이화성 · 정진화 · 정도현 · 이원희

목 적

임상적으로 드물며, 발생 시 도수정복이 잘 안되는 무지 중수지 관절 복합 탈구의 임상적 결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무지 중수지 관절의 외상성 탈구 11예(10예 후방 탈구, 1예 전방 탈구)를 대상으로 초기에 탈구의 정복 가능성, 도수정복을 방해하는 해부학적 요인, 수술적 접근법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결 과

모든 증례에서 초기에 도수정복을 시도하였으나, 2예에서만 정복이 되었다. 8례는 전방 도달법으로 관혈정복을 하였고, 1예는 만성적인 소견을 보여 관절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정복 방해 요인은 파열된 수장관 내로 근위부에서 단무지굴건과 요측 종자골이 감입되어 있었고, 중수골두는 파열된 인대와 단무지굴건 사이에 형성된 간격사이로 빠져 나와 있었다.

결 론

과신전에 의한 중수지 관절의 후방 복합 탈구는 드물지만, 정복이 쉽지 않아서 주로 관혈정복이 요구되며, 이때 정복 방해 요인인 파열된 수장관과 관절막, 단무지굴건과 종자골 등에 관심을 갖고 치료에 임하여야 한다.